

경제

저축은행 사태 끝이 안 보인다

‘프라임’ 대주주 고발에 뱅크런 ... 보해저축銀 수사도 촉각

피해자들 손해배상 소송도 봇물

‘저축은행 사태 어디가 끝인가’ 보해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중인 저축은행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비위와 국회의원 연루 의혹, 불법대출을 도모한 금융브로커 추적 등 저축은행 사태가 검찰 수사에 이어 확대되고 있다. 또 8일 프라임저축은행마저 추가로 검찰 수사에 들어가면서 저축은행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제조사2부(이성운 부장검사)는 금융감독원이 불법 초과대출 혐의로 프라임저축은행의 대주주를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업계 20위권의 프라임저축은행은 이날 오후 ‘뱅크런’

조점이 일어나며 410억원의 예금이 순식간에 인출됐다.

재매각이 결정된 보해저축은행은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 회계법인으로까지 수사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8일 오전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안전 회계법인인 광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 감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안전이 보해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억지로 맞춰놓고 감사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영진 등 임직원과 대출 차주, 금감원, 브로커 등을 대상으로 했던 보해저축은행 관련 수사가 사적

감시기구인 회계법인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정도 불법이 이뤄졌다면 회계 법인도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수사에 착수했고, 실제 불법행위의 정황도 어김없이 나왔다”며 “보해저축은행은 경영진, 회계, 감독기관, 부실 대출 차주 등 모두가 합세한 ‘비리 백화점’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앞서 7일 불법대출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삼화저축은행의 피해자들이 첫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저축은행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수사 결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간 유착관계가 속속 드러나 당국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대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

이는 지난달 29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예고한 을 하반기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이 실시되면 결과에 따라 예금자들의 민사소송이 더욱 거세질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사태는 국회의 어김없이 나왔다”며 “보해저축은행은 경영진, 회계, 감독기관, 부실 대출 차주 등 모두가 합세한 ‘비리 백화점’이라고 말했다.

지역 저축은행 관계자는 “하루가 다르게 저축은행 관련 비리가 터져나오는 데다 정·재계 인사들의 연루 의혹까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저축은행의 ‘이미지 타격’이 크다”며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저축은행들을 위해서라도 모든 의혹과 관련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바랄뿐이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안심사과 먹으며 야구 보세요”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8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젊음과 함께하는 NH농협’이라는 주제로 ‘고객 속으로~’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서 농협 전남본부는 농협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변함없는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고, 미래의 동반자인 젊은 고객과 함께하고자 야구장 입장객을 대상으로 껌질째 먹는 ‘안심사과’를 제공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금호타이어 노사특별합의서 투표 통과

금호타이어의 노사가 지난달 31일 합의한 ‘2011년 노사 특별합의서’에 대한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가결됐다. 이로써 금호타이어는 지난 3월 파업과 직장폐쇄로 갈등을 겪다 조업 정상화에 합의한 지 2개월여 만에 노사 관계에서 평화를 되찾았다.

8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2011년 노사 특별합의서’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재직 조합원 3393명 가운데 2700명이 투표해 55.2% 찬성으로 가결됐다.

합의서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함에 따라 워크아웃 기간 노사갈등이

끓이지 않았던 금호타이어는 모처럼 노사 평화를 바탕으로 워크아웃 조기 극복에 힘을 모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투표에서 반대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파업에 따른 무도부 무임금과 노사 최종 합의 결과 등에 대한 조합원의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이들 조합원을 달래는 것이 노조의 과제로 남게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현금영수증 행복 이벤트’

106명 상금·상품권 추첨 국세청

국세청은 8일 김문수 차장과 국제청 대학생 홍보대사인 2010 미스코리아 진 정소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청 회의실에서 ‘현금영수증과 함께하는 행복 이벤트’ 추첨 행사를 가졌다.

이 이벤트는 5월 한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가맹점을 이용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추첨해 모두 106명에게 상금과 상품권을 주는 행사다.

추첨은 가족 단위로 ‘현금영수증 사랑 패밀리 찾기’ 이벤트에 응모한 1만2911명과 ‘의무발행가맹점 스티커 인증 샷’ 이벤트에 참여한 7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벤트별로 1등 1명 200만원, 2등 2명 각 100만원, 3등 50명은 각 5만원의 상품권이 주어진다.

추첨 결과 ‘현금영수증 사랑 패밀리 찾기’ 이벤트 1등은 부산시 사하구 김진희씨 가족이, ‘의무발행가맹점 스티커 인증 샷’ 이벤트 1등은 서울시 강동구 이은영씨가 당첨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기업들 ‘문화경영’ 활짝

금호 유·스퀘어 예술제

25일 직원가족들 그림·글짓기 솜씨 자랑

금호고속과 금호터미널(사장 김성산)은 오는 25일 광주서구 광천동 유·스퀘어에서 승무사원을 비롯한 임직원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금호가족 유·스퀘어 문화예술제’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문화예술제는 초·중등부와 일반부(배우자)로 나눠 그림, 서예, 글짓기 부문에서 교통안전, 신나는 유·스퀘어, 가족여행 등을 주제로 솜씨를 뽐내게 된다.

시상은 부문별로 우수작을 선정해 장학금과 상패를 주고, 참가한 모든 가족에는 기념품과 점심을 제공한다.

한편, 금호고속과 금호터미널

은 가족행복경영을 위해 올 1월부터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금호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열리는 금호문화교실은 임직원 자녀들이 엄마·아빠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일하는 어떤 곳인지 소개하고, 유·스퀘어 견학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금호 관계자는 “이번 예술제는 ‘가정의 행복이 개인과 회사 발전의 밑거름’이라는 생각으로 임직원 가족 간 교류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차그룹은 8일 제주 해비치호텔 & 리조트에서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광주문예회관 등 전국 10개 문예회관과 ‘문화예술분야 나눔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 문화나눔 사업

소외계층에 광주문예회관 공연 티켓 제공

현대자동차그룹이 광주문예회관 등과 협약을 맺고 문화나눔 사업을 펼친다.

현대차그룹은 8일 제주도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광주문예회관,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김제문화예술회관 등 전국 10개 문화예술회관과 ‘문화예술분야 나눔사업 협약식’을 맺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이들 문예회관과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을 실천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연말까지 문화 소외계층에게 공연관람 지원금을 제공하는 ‘해피존 티켓나눔’ 사업과 함께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열고 있는 ‘제주 해비치아트 페스티벌’을 후원한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소외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이 단원으로 활동하는 ‘세종꿈나무 오케스트라’, 다문화가정 어린이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합창단’, 오지 초등학생 문화예술 교육사업인 ‘썬니스쿨’, 저소득층 음악인재 양성을 위한 ‘아트드림’ 등 다양한 문화나눔 활동을 후원, 운영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찾아가는 취업 박람회

오늘 평동역에서 개최

광주시·도시철도공사

광주시 일자리종합센터와 광주도시철도공사는 8일 “9일 오후 2시부터 평동산업단지 입주 업체들과 구직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광산구 평동역에서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람회에 참여하는 구인업체는 가온스틸, 대영전자, 한울에스티 등 15개 업체로 68명의 구직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금형 전자부품조립분야 등의 양성 인력과 새터민 구직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광주시 일자리종합센터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는 산업단지 내 구직난·구인난을 방지하고, 금형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금형인력 맞춤형으로 했으며 앞으로도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특화하는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시 일자리종합센터는 지난해 3월30일 개소했으며 시청사 1층 민원실과 평동공단 및 첨단산단 등 3곳에 센터를 두고 7명의 전문직업상담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7일까지 835명을 취업시키는 실적을 올렸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항만 컨 물동량 급증

5월 185만4000 TEU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185만4000TEU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7.8%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3개월 연속으로 180만TEU를 넘긴 것으로, 글로벌 경기회복 지속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수출입화물은 114만7000TEU, 환적화물은 66만7000TEU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5.4%, 10.8% 증가했고, 특히 연안화물은 40.2%나 늘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2083.35 (-16.36)
코스닥지수	469.15 (-3.65)
금리 (국고채 3년)	3.52% (+0.00)
원·달러 환율	1080.10원 (-1.9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전복장터

전복구이 전문점

양식장 직영도·소매
할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구이, 전복스팀찜, 전복무어찜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곡지구
연초제조장, 롯데빌딩, 코카콜라, 현대제과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금광아파트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아이엘리시아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平日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 - 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